

건축평단 창간호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강권정에 계간「건축평단」편집장

담론 부재와 소통의 어려움은 비단 한국 건축사회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텍스트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면 TV 토크쇼에서나 존재하듯…。 다만 건축의 위기를 넘어 종말을 고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한국에서의 절박함이 한 건축저널의 등장을 이끌었는지 모른다. 올해 3월에 창간된 「건축평단」이다.

「건축평단」이 건축역사·이론·비평 저널을 표방하며, 몇 가지 내놓은 공언이 있다. 한국 건축사회에 비평 문화가 건강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 일회성에 그친 비평·평론이 지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전문적 식견이 배제된 채 반복된 매체 노출로 가치가 매겨지는 대중영합주의와 선을 그으며, 탁월하고 위대한 건축 업적을 끈질기고 엄격하게 탐문·탐구·논구함으로써 한국 현대건축의 역사를 온당하게 일구어 나가고, 한국 건축이 창발적인 힘을 더 가지도록 지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에서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일 등을 중심으로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호 주제를 놓고 여러 필진 혹은 논객들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구조를 취할 요량이다. 논박이 벌어지는 것은 상황과 맥락을 달리하면서 지속하여 이어간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좋은 건축’이다.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질문이지만 대답을 단순하게 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튼튼하고 쓸모 있어야 하고 오래 가야 하며, 아름답고 주변과 어울려야 할 뿐 아니라 유지·관리가 쉽고 부동산으로서 자산 가치도 있어야 한다. 의문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고 상식적인 좋은 가치가 있다. ‘좋은’이 뜻하는 가치 문제는 건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좋은 건축’에 대한 대답이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건축’에 대한 질문의 방점은 ‘좋은’이 아니라 ‘건축’에 있다.

주제의 포문을 여는 김영철(배재대학교 교수)은 ‘좋은 건축’을 논의하기에 앞서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하나의



건축평단 :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건축평단 엮음,
2015

‘좋은’이 뜻하는
가치 문제는
건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좋은 건축’에 대한
질문의 방점은
‘좋은’이 아니라
‘건축’에 있다.

길을 제시한다. 건축(아키텍처)이란 말의 근원 ‘아르키텍토니케(architektonike)’에 귀를 기울이며, 낱말이 갖는 역사성에 근거하여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 방식을 다룬다. 그리고 국내외 건축가·건축지식인들(김성홍 외)이 600자 정도의 짧은 글로써 ‘좋은 건축’을 해명한다. 좋은 건축에 대한 각자의 관점과 인식 차이, 깊이를 보여주며 이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게 갈린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송종열(건축비평가)은 탁월함을 통해 좋은 건축을 설명한다. 탁월함의 속성은 희소한 것, 정교한 것, 완성도가 높은 것, 그리고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불러일으킨다는 속성이 있는데, 건축의 존재 형식과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가 인용한 아돌프 로스에 따르면 건축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내면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이종건(『건축평단』 편집인 겸 주간, 경기대학교 교수)은 건축의 역사적인 충위를 살피며, 건축가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도시와 건축을 다루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지금 여기와 만나는 ‘실용의 건축 시학’을 제시한다. 자본주의 소비사회에 저항과 존재의 완전성이 열개·확대되는 가능성으로 보여준다.

건축가 파블로 카스트로(Pablo Castro)는 1960~1970년대 뉴욕에서 일군의 건축가들, 즉 흑색파 건축가들로 페이퍼 아키텍트 운동의 세 구성원인 존 헤이덕(John Hejduk), 레이먼드 에이브러햄(Raimund Abraham), 레비우스 우즈(Lebbeus Woods)를 통해 ‘좋은 건축’에 대한 의견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그 건축가들은 도면·모형·사진 등이 건축적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한 그것이 건축 작품 자체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전문 직능을 실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건축가로 간주되었다고 말한다.

좋은 건축과 공명하는 것들

이와 함께 좋은 건축의 문제와 맞물려 건축교육과 관련된 두 문제를 제기한다. 건축 이론가 닐 리치(Neil Leach)는 건축교육 인증제의 문제점을, 건축가 서재원은 대학 설계교육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닐 리치는 인증제를 폐기하고 건축설계 교육의 방향을 바꿀 것을 주장하며, 서재원은 창의성과 재미로 귀결되는 교육방식 대신 자신이 행하고 있는 교육방식을 내놓는다. 그 뒤를 이어 함성호(시인·건축가)가 언급하는 새로움에 대한 강박증은, 안건의 ‘몽유도원도’나 ‘세한도’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왔듯이 삶과 연결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해소하길 권유한다. 이종건은 ‘우리 건축의 새로움 강박증’에 대해 전개한다.

더 흥미로운 읽을거리는 ‘우리시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혹은 ‘도시 사유가’로 불리는 렘 콜하스의 건축과 사유에 대한 김인성(영남대학교 교수)과 임성훈(동명대학교 교수)의 글이다. 김인성은 리얼 버라이어티 TV쇼 무한도전의 ‘도전’에 렘 콜하스의 다이어그램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방식을 빗대어, 렘 콜하스를 더듬어 나간다. 임성훈은 ‘렘과 레멘트의 극장’에서 건축의 현실성과 환상성을 역전시키는 렘 콜하스의 독창성을 읽어낸다.

그리고 건축가 김인철과 건축번역가이자 다양한 글쓰기에 개입하는 우영선이 루이스 칸(Louis Kahn)의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에서 만나 자신의 건축생애 중 유일하게 소름 돋는 감동을 느꼈다는 김인철의 진술에 우영선은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며 건축의 감동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건축의 한계와 역능에 대한 박성용(건축가)의 글, ‘건축가의 도발’ 꼭지에 들어 있는 윤웅원의 글 ‘건축으로 행복하십니까’는 건축 현실의 공감을 배가시킨다.

건축, 건축가, 그리고 건축작품

「건축평단」은 올 한 해 건축의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 건축과 건축가, 건축작품의 순환고리를 가지며 세 질문으로 이어 나간다. 창간호에서 ‘좋은 건축’이 함의하는 건축에 대한 질문을, 두 번째 여름호에서 건축가는 누구인가를, 세 번째 가을호에서 건축작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묻는다. 본격적인 비평은 그 다음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지난한 과정을 전제하는 것은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곧 비평 부재와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건축평단」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테이슈 토요집담회는 「건축평단」의 출판과 함께 한국 건축의 주체성과 정체성, 전통, 지역성과 보편성, 개인성과 공공성, 동시대 건축가의 생존주의 지향점과 한계, 실험적 건축 등 한국 건축 전반의 이슈를 제기하며, 또 하나의 가능성 열어 보일 것이다(정림건축문화재단 공동기획).

“지나치게 평범해 보이는 질문의 외관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면이 결코 평범치 않을 듯한, 그래서 까다롭기 그지없을 것 같은 직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리는 우리시대의 인식론적 지형이 주는 중압감도 큰 몫을 한다. 이성이며, 진리며 거대 서사며, 토대며, 규범이며, 심지어 일체의 가치 기준마저 회의에 부쳐, 폐기하거나 상대화시켜 사소하게 만드는 지형 말이다. (중략)

이 질문은 마치 답을 요구하고, 따라서 모범 답안이라 여기는 것이 제출될 경우 그로써 질문이 종결되는, 그러한 형식의 질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이든, 독단적이거나 교조적인 형식으로 볼 경우 위험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자신이나 누군가의 생각을 여는(혹은 촉발하는), 그래서 건축에 대한 각자의 전망을 파악하는 탐구의 문(혹은 화두)으로 여기는 것이 온당하다.” – 이종건(건축평단 편집인 겸 주간),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건축평단」은 몇 가지 화두를 시작으로 독자마다 건축 사유의 지도 만들기를 권한다. 자신만의 지도가 완성되기까지는 가끔 길을 잘못 들어 헤매거나 조금은 힘든 길에 들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여정에 「건축평단」이 동행이 될 수 있으리라 감히 판단하며 책을 추천한다.

한국 건축이
더욱 창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에서 좋은
자극제가 될
자원을 발굴하고자 한다.

